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8월 21일(월) 24시: 달력 사진 공모전 마감
- 8월 24일(목) 16시: 주간회의 및 회원의 날 사전 답사
- 8월 25일(금)~26일(일): 안동지역 문화답사(회원 개별 참석)

■ 연구원 소식

“화양연화, 꽃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나눕니다”
2024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달력 사진 공모전

사진 공모전 마감일이 오늘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회원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긴 달력 제작을 통한 회원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달력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회원님의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드린 SNS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안내 (9월 2일 ~ 9월 3일)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의 열일곱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土)~9월 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한옥마을 내 이오당"입니다.

이오당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이어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집 뒷마루에 앉은 편안함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새로운 기운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063-286-3005)나 최우영 사무국장(010-6275-0409), 박애스터 행정간사(010-3408-0128)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회원의 날 및 개원 17주년 일정표 ★

날짜	시간	내용	날짜	시간	내용
9월 2일 (土)	14:30 ~15:00	· 준비 및 등록 (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9월 3일 (日)	08:00 ~09:00	· 아침식사
	15:30 ~17:00	· 허부문 교수 문화 강좌 - 고전번역원 전주 분원		09:30 ~10:00	· 한옥마을 문화답사
	17:00 ~18:00	· 휴식 및 사진 공모전 현장 투표		11:00 ~	· 귀가
	18:00 ~20:30	· 저녁식사 및 개원 17주년 기념식			
	20:30 ~	· 자유시간			

■ 역사속의 오늘

비대치(鼻大峙)의 미국인 - 1950. 8. 25



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오른쪽), 왼쪽은 미 8군사령관 워커 중장.

윌리엄 F. 딘.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소장. 그는 제주 4·3때 미군정 장관이었고 사태를 온건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제주도민들을 다 죽여도 좋다." 며 강경책을 주장하던 박진경을 후임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또 친일파 처단에 관한 법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그 이후 벌어진 우리 역사의 역류를 반영하고 있다. "군정이 폐지된 후에 조선 사람 자신이 친일파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일 것이나, 그렇게 되면 서로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점령 당시에 진주 목적의 하나로서 일제 잔재를 소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군국주의적인 일본식 제도를 민주주의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친일파 운운한 것은 아니다. (서중석,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 남북협상, 한울 35쪽)

우리 역사와 좋은 인연은 아니었던 그에게 충격적인 악연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맺어진다. 본격적으로 미군 사단 병력이 인민군을 상대한 것은 대전 방어전에 서였다. 인민군을 앞잡아보고 방심했던 미군은 대전 전투에서 궤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위망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철수 부대와 함께 대전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후퇴 도중 부대와 떨어진 채 근 한 달 동안 그는 본진을 찾아 헤맸지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다.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도로 가야 했지만 엉뚱하게 전라북도 진안 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마음씨 좋은 한국인들 가족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인민군의 감시를 피했지만 그의 도피 생활은 엉뚱하게 끝난다. 전북 진안에 있는 비대치에서 1950년 8월 25일, 지역 주민의 신고로 인민군에 잡힌다.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1995년 세상을 떠났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전북신문> 2009년 10월 8일자 미군 '딘' 소장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어찌되었든 그날은 딘 소장이 동아시아의 소국 코리아라는 나라와의 사이에서 쌓았던 악연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악연을 쌓은 날이었다.

1950년 오늘, 미군 24사단장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로가 됐다가 1953년 9월 4일에서야 첫 번째 미군 포로로 송환 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천수를 누리다 1981년 세상을 떠났다.

그가 잡혔던 고개는 지금도 진안지역 주민들에게 코큰이재라 불리고 있다.